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5.4.16.(수) 조간	배포	2025.4.15.(화)	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 금융중심지지원팀	책임자	국 장	박성주	(02-3145-7890)
		담당자	팀 장	최윤선	(02-3145-7901)
	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임권순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최지혜	(02-3145-7570)
	공매도특별조사단 공매도조사기획팀	책임자	실 장	서현재	(02-3145-5630)
		담당자	팀 장	김구연	(02-3145-5636)

금감원장, 홍콩 소재 글로벌IB 대상으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 개최

- 주요 내용 -

- ◆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5.4.14(월)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,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
 - 금감원은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
 -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바 있고, 여타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
- ◆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
 -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
- ◆ 한편,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권의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
 - 이를 위해 상법·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, 최근 상법 개정 무산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

I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경제가 탄핵과 美 관세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극복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
 - 이러한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
- 먼저, 금융당국은 시장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한 바 있고
 - 이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
- 또한,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들을 꾸준히 개선*해왔다고 강조하면서
 - * 배당금 지급절차 개선, 기업분할 시 주주 보호장치 마련, 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
 - 특히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·제도적 변화의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
- 아울러,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방침 마련,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 등과 같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힘

☞ [별첨1]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(영문/국문)

[별첨2] 금융감독원 발표자료(영문)

「홍콩 투자자설명회」 개요

- ☑ **일시·장소** : '25. 4. 14.(월) 10:00 ~ 11:40, JW 메리어트 호텔 홍콩
 - ☑ **참 석 자** : 금융감독원장, 국제업무국장, 유관부서 실무자 및 홍콩 소재 글로벌IB 12개사* 임원, 증권업 협회 2개사** 관계자 등 24명
 - * 골드만삭스, 모간스탠리, BofA, JP모간, UBS, 바클레이즈, 씨티, 맥쿼리, SG, 제프리즈, HSBC, BNP 파리바
 - **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(ASIFMA), 아시아증권대차협회(PASLA)
- ※ 행사 전 과정은 영어로 진행

Ⅱ 주요 논의사항

▣ 크게 ①공매도 제도 및 제재 조치, ②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,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

세션① | 공매도 제도 및 제재 조치 관련

■ **(A사 등 의견)** 공매도 전면 재개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및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함

- 글로벌IB들도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음
- 다만, 해외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변화 등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규제 운영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
 - 이를 위해 제도개편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

■ **(답변요지)** 금융당국은 '24.6월 발표된 공매도 재개 로드맵에 제시된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였고,

-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 신뢰를 위해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하였음
 -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*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유동성·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판단함
- * [주식자금 유출입 추이(조원)] △7.4('24.9월) → △3.6(12월) → △0.7('25.1월) → △2.8(2월) → △1.6(3월)
- 또한 공매도 제도개선 쉼 과정에서 설명회·토론회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·직접적으로 소통한 바 있고
 -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들과도 지속 소통할 계획임

■ **(B사 등 의견)** 한국의 공매도 규제 및 제재 수준이 높아 글로벌 투자·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-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개선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

- ▶ **(답변요지)** 과거 불법공매도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였고,
- 앞으로도 한국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임
 - 다만,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업무관행 및 내부통제 부실 등 과거 공매도 금지를 초래한 사유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,
 -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·작동을 통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
 - 한편, 제도개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 애로사항이 있다면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음

세션② |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평가 및 제언

- 1 **(C사 의견)** 글로벌IB들도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및 최근 법령 개정 논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
- 특히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미흡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역할*이 중요하다고 생각함
 - * 최근 일부 개별 종목의 유상증자 사례에서와 같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할 필요
 - 최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
 -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됨

- ▶ **(답변요지)** 현재 한국에서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
- 이는 그만큼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
 - 주주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며,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

2 (D사 의견)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함

- 현실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
 -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함
- 법 개정과 방식을 두고 정부·국회·학계 등의 의견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, 활발한 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
 -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,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어느 하나가 아닌 모두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

▶ (답변요지) 한국 금융당국도 주주권의 제고를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고

- 다양한 입법적·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III 평가 및 향후 계획

-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관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해외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
 - 특히, 공매도 제도개선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에 따른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
 - 한편,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아직 주주권의 보호, 지배구조 개선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
-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